【자유교회 소식】

1.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늘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2. 오늘 설교는 한국에서 오신 안용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3. 친교 식사 후에 4월 월례회로 모입니다.
4. 이창호 권사님 가정이 한국 방문 중입니다.
5. 성경공부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출타하신 분들,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00.00	
감사헌금:	$1,500.00	
주일헌금:	$40.00	
특별헌금:	$340.00	합계 $2,88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일 예 배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기 도	Prayer	유선정 집사
찬 양	Special Event	정태훈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룻기 4장 17절**	인 도 자
설 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안 용 곤 전 도 사
찬송과봉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최정아 집사
- 다음주 찬양: 정헌구 성도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FFC와 연합)
한글학교& 찬양대	주일 오후 1:30
Youth Group	매수 오후 7시(FFC Youth)

2018년 4월 8일 2018-14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 생각해 볼 이야기 ◘

오스 힐먼의『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아라비아에 광야를 건너는 세 상인이 있었다. 세 사람은 낮에는 광야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쉬다가 별이 빛나는 서늘한 밤에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강 바닥을 걷고 있던 그들에게 "멈춰!" 하는 음성이 들렸다. 셋은 너무나 놀라 낙타에서 뛰어 내리며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속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하면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발 앞에 조약돌이 보이느냐?"

희미한 별빛에 수많은 조약돌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 조약돌 하나씩 주어 호주머니에 넣어라." 세 상인은 순순히 강바닥에서 조약돌을 하나씩 집었다.

그러자 또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가라"

한 상인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음성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음성은 "한 가지만 애기하마. 아침이 되면 너희는 행복한 동시에 슬플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 상인은 걸음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행복한 동시에 슬플 거라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드디어 저 멀리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조약돌을 꺼내 들었다. 조약돌은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보석이었다. 하나는 루비, 다른 하나는 에메랄드, 나머지 하나는 사파이어였다.

"보석이다!" 한 상인이 기쁨에 들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젠장!" 옆 사람이 말했다.

"그럼 강바닥에 수많은 보석들이 깔려 있었는데 우리는 겨우 하나씩만 가지고 왔다는 거야?"

"저것 좀 봐!" 세 번째 상인이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광야에 심한 바람이 불더니 그들이 왔던 발자국을 모두 지워 버린 것이다.

"이젠 우린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

광야에서 들린 음성이 옳았다. 상인들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매우 슬펐다. 광야에서 부를 발견했지만 더 많이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이 깔려 있는 조약돌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한 두 개의 조약돌만을 주을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 하찮게 여겼던 조약돌들이 보화임을 알았을 때는 발견한 그 보화로 인해 행복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챙기지 못해 슬퍼합니다.

【자유교회가 꿈꾸는 교회】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